최근 국내 ETF 시장 동향 및 특징

□ 국내 ETF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순자산총액 35조원 및 상장종목수 300개를 돌파

□ 2017년중 은행, 연기금, 정부 및 지자체 등 기관을 중심으로 ETF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견인

□ 한편, 2017년중 코스닥 활용 ETF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수 추종형 상품과 더불어 액티브 ETF가 도입되어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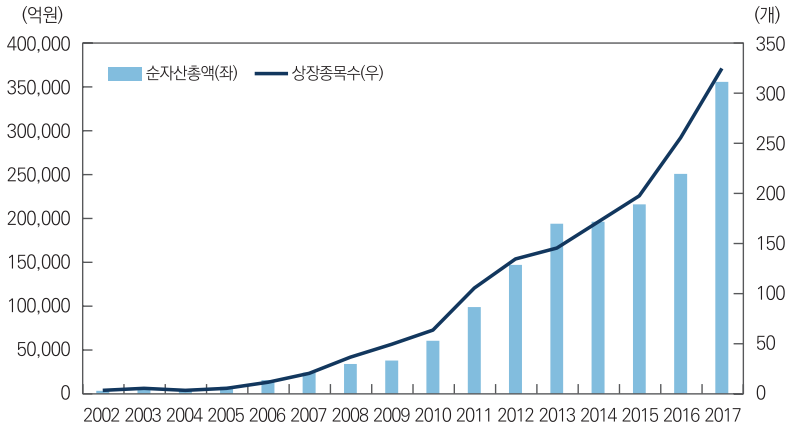
□ 국내 ETF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순자산총액 35조원 및 상장종목수 300개를 돌파

— 2017년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은 35조 6,109억원으로 전년(25조 1,018억원)대비 약 41.9% 성장

- 2002년 시장 출범 이후와 비교해 보면 지난 15년간 순자산총액 규모는 약 89배가 증가
- 코스피 시가총액(2017년말 기준, 1,605조원) 대비 ETF 순자산총액은 2002년 0.1%에서 2017년 2.2%까지 확대

— 상장종목수 또한 2016년 256개 종목에서 2017년 325개 종목(국내 ETF 230개 및 해외 ETF 95개)으로 약 27% 증가

국내 ETF 시장 규모 추이



자료: KRX

□ **2017년중 은행, 연기금, 정부 및 지자체 등 기관을 중심으로 ETF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견인**

— 2017년 기관 전체의 ETF 일평균거래대금은 2,467억원으로 2016년 1,533억원 대비 930억원 이상(약 61%)이 증가

• 주요 기관별 ETF 일평균거래대금 증가('16년→'17년): 보험 146억원→227억원, 은행 185억원→418억원, 연기금 48억원→99억원, 정부 및 지자체 2억원→254억원

— 특히, 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가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재개하면서 기관의 거래규모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2013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0.3%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차익거래 감소 등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자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7년 4월 28일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및 지자체 ETF 순매수금액은 2016년 210억원에서 2017년 11조 3천억원으로 537배 증가

ETF 투자자별 거래동향

(단위: 억원, %)

투자주체	2016년		2017년	
	일평균거래대금	비중	일평균거래대금	비중
유동성공급자(LP)	1,588	20.1	2,118	21.6
기관합계	1,533	19.4	2,467	25.2
금융투자(LP제외)	596	7.5	789	8.1
보험	146	1.8	227	2.3
투신	451	5.7	544	5.6
사모	39	0.5	64	0.7
은행	185	2.3	418	4.3
기타금융	16	0.2	11	0.1
연기금	48	0.6	99	1.0
정부 및 지자체	2	0.0	254	2.6
기타법인	51	0.6	60	0.6
개인	3,256	41.2	3,307	33.8
외국인	1,523	19.3	1,900	19.4
전체	7,900	100.0	9,792	100.0

자료: KRX

□ **국내 ETF 시장의 상품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형 ETF와 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 ETF 위주로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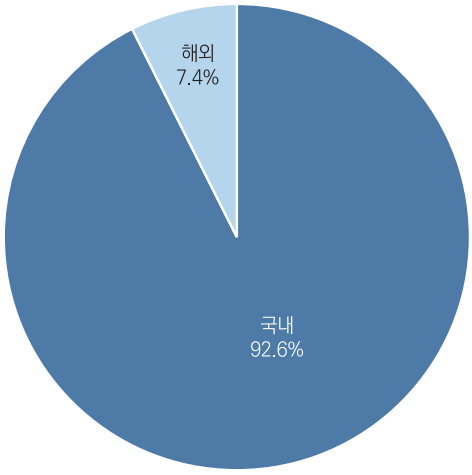
— 2017년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 35.6조원중 국내자산 ETF가 32.9조원으로 시장 상품 대부분을 차지(92.6%)하며 해외자산 ETF는 7.4%에 불과

— 국내자산 ETF는 주식형 62.9%, 레버리지·인버스형 15.3%, 채권형 10.0%, 액티브 3.7% 순으로 집계되어 주요 상품유형에 쏠림현상 시현

• 국내 주식형 ETF 62.9% 내에서도 코스피 및 코스닥 등 시장대표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시장대표 유형이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국내 ETF 시장 상품유형별 순자산총액 비중 및 상장종목수(2017년말 기준)

기초자산 시장별 구분



시장별 상품유형 구분

(단위: %, 개)

구분		순자산총액비중	상장종목수
국내	주식	62.9	156
	채권	10.0	21
	통화	0.3	2
	혼합자산	0.3	8
	레버리지·인버스	15.3	36
	액티브	3.7	7
소계		92.6	230
해외	주식	4.8	58
	채권	0.1	2
	원자재	0.8	11
	부동산	0.1	2
	혼합자산	0.0	1
	레버리지·인버스	1.5	21
소계		7.4	95

자료: KRX

□ **한편, 2017년중 코스닥 시장 활황으로 주식형 ETF중 코스닥 활용 ETF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

— 코스피 활용 ETF 대비 코스닥 활용 ETF 비중이 2016년 5% 수준에서 2017년 13% 수준까지 확대

• 코스피 vs 코스닥 활용 ETF 순자산총액: ('16년)16조원 vs 0.7조원→('17년)22조원 vs 3조원

— 2017년중 코스닥 150 ETF 11종목에 순유입된 자금은 1.4조원에 이르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275억원 규모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또한 그동안 지수 추종형 상품에 국한되던 국내 ETF 시장에 액티브(Active) ETF가 도입되면서 상품의 다양화 및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

— 현재 상장된 액티브 ETF는 모두 채권형으로 삼성, KB, 미래에셋, 한투, 한화 등 5개 운용사가 약 1.5조원 규모로 2017년 6월 및 9월에 7종목(단기형상품 4종목 및 중·장기형상품 3종목)을 상장

•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고 기본 거래단위가 계약당 10~100억원으로 크기 때문에 전략복제 및 선행매매가 어려운 채권형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 다만, 2017년 7월 이후 채권형 액티브 ETF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2018년 1월 30일 KRX 조회기준, -0.64%) 거래량 및 수익률 등이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

〈참고〉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 비교

— 액티브 ETF는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종목 비중 및 매매시점 등을 운용역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저비용·접근성 등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 펀드의 특성이 결합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 주요 특징 비교

구분	액티브 ETF	패시브 ETF
초과수익 추구여부	O	X
지수개념	비교지수	기초지수
운용목표	지수성과 초과	지수성과 연동
자산운용 방법	매니저 재량	지수복제
자산유형	채권형 한정	제한 없음

자료: KRX

연구원 장효미